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마을 만들어”

임실군 삼락농정 대표 선거마을 경관조성사업 본격화... 주민설명회도 열여

전북도의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을 대표하는 임실군 운암면 선거마을의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농촌경관을 전라북도 대표 농촌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써 선거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선거마을은 지난 해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0일 선거마을 슬로푸드 체험관에는 모내기 등으로 바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을 활용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40여명의 마을주민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과 사업 설명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아울러 '경관사업의 출발은 마을청소부터'라는 농촌경관교육을 실시했다.

선거마을은 이 사업을 통해 마을의 중요 경관자원인 '구사밭'과 조화로운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섬진강'과 '육정호'가 자리하고 있는 선거마을은, 영화 현빈의 '역린'과 김혜수의 'YMCA야구단'의 촬영지였던 광활한 '구사밭'은 자생하는 기생초와 지운영의 군락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30일 선거마을 슬로푸드 체험관에는 모내기 등으로 바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을 활용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마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관분야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조경학과 김상욱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선임하고, 중장기계획까지 포함한 충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도 선정했다.

따라서 주민 주도형 경관사업의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후 본격적으로 마을 정비와 경관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도 주민 역량강화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성과 경관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야'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6주간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야'를 운영한다.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야'는 경찰서의 선도 교육 대상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비행 예방 선도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과 음주 등 일탈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폭력 예방교육과 분노 조절교육, 노동법, 금연 예방교육 등의 선도 교육과 재과·재범 체험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 청소년에게 처벌보다는 선도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사업, 학교폭력 예방 포대상담사업, 학생정서행동 특성 지원사업, 사랑의 교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스쿨 무한도전 프로그램 운영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백옥경)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는 '청소년 스쿨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학교 캠페인활동을 유도하고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다양한 청소년 캠페인 나눔 활동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군산중, 군산남중, 서흥중, 진포중, 월명중학교 등 5개 학교에서 학교 내 캠페인활동으로 욕설 없는 학교, 1회용품 줄이기, 스마트폰중독, 금연·금주캠페인이 이뤄지고 학교 밖 캠페인은 볼기와 발길안전, 안녕, 안전, 인부 캠페인 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안녕캠페인 운동'과 테마별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물론 등굣길 학교정문에서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원여성이용소방대, 짜장면 나눔 행사 가저

남원여성이용소방대는 지난 31일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에서 소방서 근무 특성상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각종 재난현장을 누비는 대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총 60여명의 직원들에게 맛있는 짜장면을 제공한 것이다.

이날 짜장면 나눔은 초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잦은 화재출동과 훈련으로 체력이 소진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면서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서, 승진임용식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31일 오전, 경찰서 서장실에서 서장, 각 과장, 동료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승진 임용식은 6월 1일자로 구천파출소 최정필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는 것을 축하하며 앞당겨 자리를 마련하였고 임명장 수여, 계급장 부착, 꽃다발 전달,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되었다.

윤중섭 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치안활동을 통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힘써 달라."라고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주=전문식 기자



익산시, 원광대 사범대생 등 대상 성폭력 예방 특강 '성황'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원광대학교 사범대생 및 교직 이수 학생 1500여명을 대상 대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성희롱 및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처벌관계, 대처 방안 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식 및 퀴즈풀이 형태로 진행 되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은 "이번 교육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상호존중과 배려를 배운 시간이었다. 또한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무진장소방서, 2019년 119소년단 4개대 구성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31일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한 어린이(청소년) 육성을 위한 119소년단을 4개대로 구성했다.


119소년단은 1963년도에 창단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단체로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 및 소방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무진장소방서 관내 119소년단은 ▲번암초등학교 26명 ▲장계어린이집 43명 ▲진안중앙초등학교 20명 ▲진안마이꿈유치원 16명이 구성된다. 소방서에서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각 소년단에 방문해 발대식 및 선서식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주=고판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